



서핑하기 딱 좋은날 구름이 잔뜩 끼고 어느때보다 바람 많은 날씨를 보인 14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 많은 서퍼들이 찾아 밀려오는 파도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찬 공기 유입... 제주 일교차 ↑

기상청 “7℃ 이상 차이
건강관리 특히 주의해야”

제주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5일은 중국 북부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다가 오후에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겠다”며 “16일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15일 아침 기온 13~14℃,

낮 기온 20~22℃이며, 16일 아침 기온은 14~15℃, 낮 기온은 20~22℃의 분포를 보이는 등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겹치면서 낮과 밤의 기온이 낮아지고, 낮 동안은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기온차가 크겠다”며 “이에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4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으며, 나머지 해상에서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조업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송은범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한달 앞으로’ / “마지막 집중력 중요해요” 새 책 선택 ‘No’... 자주 틀리는 유형 공략

6·9월 모의평가가 성적 맞춰 학습 전략 짜야
수면시간 조절 등 막바지 컨디션 유지 중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15일)로 딱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성적표가 지난 1일 수험생에게 전달되면서 자칫 조금해지기 쉬운 시기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맞춤형 대비’가 중요하다.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성적표를 가지고 자신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김석준 교사가 말했다. 두 개의 성적을 기준으로

남은 한달의 학습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다. 자신이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과 취약 과목 등을 파악해 공부 비중을 늘리는 막바지 대비가 필요하다.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했지만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학생도 반드시 염두해야 할 사항이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무리 금물이다. 여러 문제를 풀어보려 ‘새 책’을 사는 일도 피해야 한다. 실제 수능처럼 시간을 정해 모의고

사 형태의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는 것은 권장하지만 어려운 교재를 새로 학습하는 건 자칫 자존감도 떨어뜨릴 수 있다. 김 교사는 “지금 시기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던 것을 확인하는 ‘다지기’가 중요하다”며 “새 교재를 선택하기보단 자신이 많이 봤던 책이나 오답노트 등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반복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6·9월 모의평가가 성적이 좋다고 자만해서도 안된다. 김 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두 번의 모의평가를 본 졸업생은 전국적으로 6만6000~8000명 정도였는

데, 올해 수능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4만명의 졸업생이 응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수능 당일까지 자만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에 제주 예선 수험생 7070명이 응시한다. 이 중 재학생은 5569명, 졸업생은 1352명, 검정고시합격자는 149명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수능을 한 달 앞둔 14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일교차가 큰 날씨만큼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충실히 해달라”며 부서별 협력·소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은기자

교통사고 예방책 ‘단속’이 능사일까...

제주경찰 CCTV 등 확대
사망사고 예방효과 미미
과태료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경찰이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감소에 앞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전년 대비 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07명, 2014년 92명, 2015년 93명, 2016년 80명, 2017년 80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올해 10월 13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3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한편 6월부터는 도내 27곳에 무인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해 운영에 나서고 있다. 또 이달부터는 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에서 자행되는 난폭·암계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증가로만 나타나고 있다.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3만9155건으로 지난해 대비 32%가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11만6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만6297건, 끼어들기 금지 1504건, 중앙선 침범 1013건 순이었다. 송은범기자

학교 10곳중 7곳, 학생 안전통행 ‘불안’

교내 도로-보행로 구분 안돼 사고발생 위험 높아
도교육청 “올해 전수조사 계획... 2024년까지 개선”

제주도내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교사가 운전하던 차량에 학생이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

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학교(초·중·고·특수학교) 194곳 중에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어 있는 곳은 56곳(28.9%)에 그치고 있다. 도내 전체 학교의 70% 이상이 인도를 따로 두거나 안전봉 등으로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도내 초등학교


118곳 중 89곳(75.4%), 중학교 44곳 중 32곳(72.7%), 고등학교 29곳 중 14곳(48.3%)에서 학교 안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 이 중 일부 학교는 진입로 협소 등의 이유로 도로와 보행로를 따로 둘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지만 도내 상당수의 학교 안에서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 도로 보행로 구분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학로 위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교내 도로와 보행로 분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교내 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올해 안으로 위험 요소를 줄일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2024년까지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19~20일 ‘제주 책축제’

가을소풍처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책축제’가 열린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중등국어교육연구회, 제주초등국어교과교육연구회, 제주도공공도서관협의회가 함께 여는 자리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제주책축제는 ‘책이영 놀아서사 꿈 커마삼!’을 주제로 19~20일 제주시 오라2동 탐라교육원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특히 올해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3·1 이야기마당과 특별체험 부스가 마련돼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개막식을 겸한 3·1이야기마당은 행사 첫날 오후 3시30분 탐라교육원 야외특설무대에서 제주고등학교 교악대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축제장에는 공연·체험·경연·전시 가 다채롭게 준비돼 참가자를 맞는

다. 경연마당에선 독서 골든벨과 학생 토론 한마당이, 공연마당에선 색동회 제주지부의 제주설화 인형극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 책 3권을 가져가면 새 책 1권으로 교환해주는 마당도 운영된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제주 교육의 수준이 높아 질수록 제주의 꿈은 커집니다

한라서적타운 10월 15일 사옥이전

1층 한라서적타운 2층·3층 대형주차장 완비



학교 현장방문을 환영합니다

**늘 감사 했던 3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30년을 향해**

지난 30년 함께 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10월 15일 화요일부터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제주문화 르네상스를 위하여 랜드마크 한라서적타운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제주 도민들께서 보내주시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제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더 큰 희망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주)한라서적타운 박경호 배상

이전장소 : 제주시 동광로 16길 5
연락처 : T. 064.722-7722